

# 장편소설 '억대' 상금의 화려한 유혹

## 각종 문학상 고액화 추세... 창작 활성화나 상업주의나 논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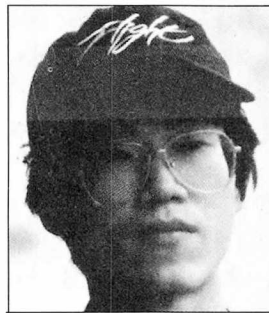
지난 93년 벼두, 국민일보사는 '1억원'이라는 유례없는 고료를 내걸고 기성·신인 구별없이 장편소설을 공모해 일대 화제를 일으켰다. 94년 2월 당선자가 발표되자마자 각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당선작이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물론이다. 그 성공에 힘입어 두번째 공모에서는 '국민일보문학상'이란 타이틀로 장르가 넓혀졌고, 장편소설부문 당선자에게는 역시 1억원, 시와 희곡부문 당선자에게는 각 2천만원씩(각작 1천만원)의 고료가 주어졌다.

그에 뒤따라 최근 한국일보사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또다시 '1억원' 고료의 장편소설 공모를 발표했다. 한겨레신문도 3천만원 고료의 장편소설을 공모중이다. 또 지난해 겨울 창간된 계간지 '문학동네'에서는 3천만원 고료를 걸고 '문학동네 소설상'이라는 이름으로 장편소설을, 1천만원 고료의 '문학동네 신인상'으로 중편소설을 공모하고 있다. 계간지 '작가세계'에서는 2천만원 고료의 '작가세계문학상' 당선작을 이미 4회째 내놓고 있다.

소설 한 편만 잘 쓰면 '억대'의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곳곳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유례없는 현상에 대해 '문학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고무적인 현상으로서 반기는 이들이 있는 반면, 문학이 상업주의·한탕주의의 물결 속에 휩쓸리는 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도 차츰 높아지고 있다.

### "투자 가치가 있으므로 투자한다"

국민일보의 경우, 당선된 장편소설의 판권은 3년간 당사에 귀속된다. 1회 당선작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온다」는 지난해 10월 이미 30만부를 돌파하여 손익분기점을 까마득히 상회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일보'의 위상과 지명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한국일보는 당선자 발표와 함께 수상작을 신문에 연재한다는 점이 국민일보와 다른데, 일단 연재가 끝나 단행본으로 출간된 뒤에는 역시 3년간 판권을 가질 예정이다. 「작가세계문학상」의 당선작도 3년간 판권이 세계사에 귀속되며, 「문학동네



고액의 고료를 상금으로 받았던 작가들. 위쪽 왼쪽부터 김형경·최문희·이인화·장태일·김연수씨.

소설상·신인상」의 판권 귀속기간은 1년이다. 예외적으로 한겨레신문은 인세가 고료 3천만 원을 상회할 경우 잔액을 지불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5단통 출판광고 한번에 8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투자는 투자자의 입장

으로서는 차라리 합리적이다. 깜짝 놀랄 만한 상금액수를 밝히는 것만으로 파격적인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깜짝 놀랄 만한 투자'가 그 작품을 생산해내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있다.

"우선 우리 문단을 풍성하게 해주었고 저 개인으로서 다시 작품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렇게 공모하는 곳이 많아질 경우 계속해서 일정한 수준의 작품들이 모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94년도에 제1회 국민일보문학상을 수상한 김형경씨(35)는 이런 거액의 상금 때문에 문학이 상업주의에 휩쓸리지 않겠냐는 문제에는 별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인다.

"자본주의 사회인 이상 자본의 논리를 인정해야겠죠. 지금까지 문화가 너무 높은 자리에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문화도 산업사회의 한가운데로 내려와서 자기 손으로 자기를 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학을 공부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젊은 문학도 비씨(23)는 이렇게 말한다.

"흔히들 액수 때문에 주먹북권 같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만한 작품을 쓰려고 애쓴 노력이 있는데 복권이라니요. 되도록이면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생겨서 열의를 가지고 창작에 매진할 수 있으면 합니다. 되든 안되든 한번 매달려보는 거예요. 사실 문학상의 상금이란 늘 있어왔던 것인데, 단지 액수가 많아졌다 해서 우려한다는 건 좀 고리타분합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 각계의 의견

## "문학의 질적 수준 높일 수 있을까"

▲김병익(문학평론가)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 문단사만 놓고 보면 예외적인 추세다. 문화사의 중심이 문자미디어에서 영상미디어로 옮겨가는 이 시점에서 '문자 미디어의 반항'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문학마저 오히려 그 문화산업 속으로 편입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70년대까지 우리나라 문학은 단편중심이었고, 80년대에 이르러 「토지」를 비롯한 대하소설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런 공모와 함께 두 권 정도의 장편소설이 소설사 속에 위치를 정립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최일남(소설가) 좋은 소설이 돈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문학의 이름으로 그런 거액을 준다는 것이 과연 들어맞는 일인지 의심스럽다.

▲권영민(문학평론가) 소설이라는 문학양식이 상업주의에 편승한 결과다. 진지한 의식을

담은 소설이 줄고 가볍게 읽는 통속적 소설이 늘어가고 있는데, 거액 상금은 이런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작가들에게는 다행한 일일지 모르나, 문학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는 없으리라고 본다.

▲윤후명(소설가) 한마디로 부정적이다. 이런 추세는 문학의 피폐화 현상을 부를 것이다. 돈 많은 외국 재벌이 10억을 내놓는다면 또 그것이 팔릴 것이다. 이것은 자본의 악순환이며, 자본주의의 악폐다. 상금으로는 1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최윤(소설가) 거액의 장편 공모가 문학생산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아니면 양적인 팽배만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은 '운용'에 달렸다. 젊은 작가, 어려운 작가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히려 소신에 맞는 부분을 쓰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있는 지원형식이 요구된다고 본다.

▲황지우(시인)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자본의 유혹에 대하여 발생적으로 친화력을 갖고 있다. 그런 유혹이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겠으나(소설가도 먹고 살아야 하므로), 소설가에게 예술가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이 시대적으로 영 틀려버렸는지, 지나가버린 것인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유혹의 산물로 나온 것이 좋은 작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고, 유감스런 일이지는 하나 이런 불가항력적인 추세 속에서 작가 스스로 격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승우(소설가) 진지하게 문학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이나 좌절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영리가 목적인 단체들에게 이윤추구를 중단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센세이션만을 노리기보다는 작가가 작품을 대하는 마음자세가 상금에 팔리지 않을 만큼의 적절한 금액수준이 유지됐으면 한다.

▲채영주(소설가) 복권식으로 일시에 거액의 상금을 주고 해치워버리는 이런 제도들이 센세이션하게만 진행되다 보니 공연히 모두를 흥분시켰다가 또 허망하게 만들고 있다. 장기적으로 작가를 격려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아쉽다.

소설 한 편만 잘 쓰면 '억대'의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곳곳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 유례없는 현상에 대해 '문학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반기는 이들이 있는 반면, 문학이 상업주의·한탕주의의 물결 속에 휩쓸리는 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차츰 높아지고 있다.

일이지만 금전적인 문제까지 해결된다면 더 좋겠지요."

**창작의 활성화나, 상업주의로의 편입이나**

그러나 문단 전반의 분위기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소설가 윤희명(49)씨는 "한 마디로 이것은 자본주의의 악폐"라고 못박으며 "상금은 1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하거나, 많은 작가들은 이런 추세가 문학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상업성에 영합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상업주의의 높은 파고에 문학이 함께 난파 당하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못마땅하지만 불가항력적인 힘도 느껴지고, 또 설령 불가항력적이라 할지라도 작가가 좋은 작품으로 격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입니다."

시인 황지우씨(42)의 말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원로작가의 말처럼 "문학은 돈을 버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거액 현상공모는 우려스러운 일, 더 나아가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설가 이승우씨(34)는 장편소설을 공모하는 곳이 많아졌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다만 상금이 '충격적'이지 않을 만큼이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표한다.

"요즘 고액화폐기는 상금이라는 것이 문학의 그만한 가치를 인정해서라기보다는 다소 센세이셔널한 상업적 효과를 위해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가들이 작품에 임하는 마음자세가 '억대' 상금에 유혹돼서는 곤란하죠."

한편 일각에서는 기왕 이렇게 붓물처럼 터

져나오고 있는 거액의 고료들이 문화 전반을 "장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격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금'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나 기업의 지원금은 주로 실험적이고 비대중적인 문학작품 및 장르, 그리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출판을 진흥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불문학자 김화영씨(54)는 "어느 곳에도 이런 엄청난 상금을 소설가에게 주는 나라는 없다"며 "그러잖아도 잘 팔리는 장편소설이라는 장르에다가 굳이 그런 거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고 반문한다. 소설가 최윤씨(42)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장편 공모도 말하자면 고액의 문학 지원인 셈인데, 이것이 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다양하게 향상시키는 쪽으로 발전하기 보다는 오히려 평범한 대중성만을 재생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에 있어 경제적 풍요가 뒷받침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 '진흥금액'으로서 그 목적에 충실한 '합리적인 운용'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다양한 문화지원금으로의 전환 필요**

"장편소설 고료도 '억대'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말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 번져나가고 있다. 창작풍토의 활성화에 "기폭제 노릇"을 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목소리도 들리고, 어떤 이들은 성급하게 "문학의 부흥"을 점치기까지 한다. 젊은이들에게 일단 "나도 써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문학의 저변을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에 따라 영상미디어쪽으로 빼앗겼던 인력을 문학쪽으로 다시 끌어들이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문학마저 문화산업에 편입되어가는가?" "일확천금의 세대풍조를 반영했다" "대중적인 작품의 양적 팽배만을 부를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무성난 논의들 속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부산한 자본의 시대 속에서 문학이 어떻게든 온전하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과제일 것이다. 나아가 오늘의 이 유례없는 현상이 소문난 잔치처럼 허망하게 끝나지 않도록, 진정 "합리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지원으로 전환·발전시키는 일 역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한 강 기자

# 대주신제국사



## 大朝鮮帝國史

한국문화문화상 수상

한국인 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우리 역사 - 올바른 역사의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보급판

대한의 젊은이여, 「대주신제국사」를 읽고 민족중흥의 역군이 되십시오.

중국대륙에서 일본열도에 이르기까지 웅대한 기상을 드러냈던 우리 역사의 흐름을 알고, 민족의 뿌리를 찾아가는 찬란한 우리 민족사 - 이제, 「대주신제국사」를 통해 잘못된 역사의 진실을 찾고, 장엄한 민족의 기개를 바로세워야 할 때입니다.

- 장서판 : 90,000원 (전3권)
- 보급판 : 29,400원 (전3권)
- 날권판매 가능 (각권 9,800원)

국내 최초의 회화극본  
**산 호** 글/그림



장서판



유머와 해학이 담긴  
대한 역사 만화소설

# 고우영 만화 심팔사략

심팔사략(十八史略)이란? 중국의 정사 26종 중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 탁구태의 송사(宋史)까지 18개의 정사를 원나라 때 증신지가 심팔사략으로 요약한 책

지금, 4천년 중국 역사의 주역들이  
고우영의 유머와 해학속에 다시 태어난다.

역사의 슬한 인간상들에게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방식을 발견하십시오.

중국 역사중 가장 흥미있고 중요한 사료와 인물들을 총망라하여 고우영의 유머와 해학으로 펼쳐가는 「만화 심팔사략」 - 경영전략, 인생지략은 물론 삶의 철학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값/각권 5,000원



1, 2, 3권  
절찬리 판매중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